

# 대형-중소형 증권사, 올해 해외 수수료 수익 양극화 '심화'

미래에셋 증권, 전년비 80% 늘어  
삼성·키움증권, 각 51%·57% ↑

카카오·유안타증권 등 성장세에도  
전체 수익 비중 단 3%선에 그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대거 옮겨가면서 증권업계의 외화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사 간 관련 수수료 수익 격차는 급격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소형사들의 관련 수익비중은 업계 전체의 5%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해외주식 수수료 수입부문에서 주요 대형 증권사들은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 3분기까지 누적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이 18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으며, 삼성증권(1454억원)과 키움증권(1294억원)도 각각 51%와 5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어 KB증

〈증권사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수입 순위〉

(단위 : 백만원)

순위	회사	2024년 1~3분기	순위	회사	2024년 1~3분기
1	미래에셋증권	180,191	13	한화투자증권	2,429
2	삼성증권	145,347	14	엘에스증권	2,394
3	키움증권	129,403	15	메리츠증권	1,951
4	토스증권	114,089	16	유진투자증권	1,683
5	KB증권	76,508	17	교보증권	1,564
6	NH투자증권	76,415	18	IM증권	769
7	한국투자증권	76,145	19	현대차증권	679
8	신한투자증권	58,124	20	IBK투자증권	570
9	하나증권	18,077	21	SK증권	415
10	대신증권	14,301	22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134
11	카카오에이증권	10,246	23	상상인증권	6.5
12	유안타증권	6,073	24	다올투자증권	1.9

\*12월 결산법인 대상.

/각 사별 공시자료

권(765억원), NH투자증권(764억원), 한국투자증권(761억원) 역시 전년 대비 각각 82%, 35%, 66%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

식시장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미국 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를 평균이 1.5bp(1bp=0.01%포인트)인데 비해 해외주식의 경우 6~8bp로 높고 환차

익 수수료까지 수취해 리테일 부문의 효자 부문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대형 증권사들에 비해 상당수 중소형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비중은 대형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업계 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카카오에이증권(212%), 유안타증권(72%), 교보증권(82%) 등은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중소형사들의 전체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수익 비중은 단 3%선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격차는 대형 증권사들이 고액자산가 등 차별화된 리테일 고객층을 보유하는 등 점유율 방어 능력이 돋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6대 대형증권사가 올해 3분기까지 기록한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수익은 전체의 74%를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했다.

중소형 증권사들이 대형 증권사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고객 기반 확대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대형사들이 이에 맞서 해외 주식 관련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부터 고객이 원하는 목표환율에 실시간 매수·매도환율이 도달하면 자동으로 환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기존의 리테일 경쟁력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해외 주식 부문까지 확장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들은 해외 파생상품 강화, 세금 혜택 제공, 해외 투자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기존 투자자들이 플랫폼을 변경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 중소형사 입장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자동차株, 자율주행 규제완화 수혜 기대감 ↑

현대차 6.31%, 기아 6.11% 주가 올라  
美 관세정책 빚겨갈 가능성 높아  
주주환원 모멘텀도 상승동력 꼽혀

‘트럼프 리스크’ 종목으로 꼽혔던 자동차주가 미국의 관세 정책 우려 축소, 자율주행 규제 완화 등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밸류업’ 우등생인 만큼 주주환원 모멘텀도 주가 회복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1월 18일~25일)을 기준으로 현대차는 6.31%, 기아는 6.11%씩 오르면서 반등 기미를 보였다. 앞서 두 기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가 하락세를 기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 관련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5%의 관세를 혹은 면제로 수출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권에서 10~20% 수준의 보편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엮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정권 1기에서도 한국 자동차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미 대선 결과의 영향을 받았던 지난달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현대차의 주가는 9.34%, 기아는 3.51% 떨어졌다. SK증권에 따르면 현대차의 2023년 미국 수출 차량은 약 53만대로 같은 해 미국 시장 판매량의 61% 수준이며, 기아 역시 44% 수준에 달한다. 미국 시장의 이익 기여도가 50%를 상회하는 상황인 만큼 관세 부과 시 수출 물량에 대한 수익성 악화 우려가 높은 것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10%의 관세를 현대차·기아가 100% 부담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영업이익 하락 폭은 13~17% 수준”이라며 “이 또한 미국 공장 생산 확대, 기아 멕시코 공장 활용 등을 이용해 최소화 가능하다”고 짚었다. 실제로 내년 출시 예정인 현대차의 전기차 대형 SUV 모델인 ‘아이오닉 9’는 미국 조지아주 소재 공장에서 생산될 계획이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빚겨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8일 당일에만 현대차는

5.34%, 기아는 5.57% 급등하기도 했다. 윤 연구원은 “현대차는 웨이모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되며, 모셔널과 협력해 2026년 출시 예정인 로보택시는 미국의 자율주행 규정 완화에 오히려 수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기 성장 로드맵을 통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한다는 평가다.

주주환원 모멘텀 역시 자동차주의 주요 상승 동력으로 꼽힌다. 2024년 기준 현대차와 기아의 배당수익률은 각각 5.9%, 6.5%로 높은 편이며, 총주주환원 수익률도 두 종목 모두 8%대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자동차업종의 주요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펀더멘털과 주가의 괴리가 지나치게 벌어졌고, 성장성 프리미엄을 차치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콜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주가는 현재의 박스권 ‘하단’에서 주주환원 모멘텀을 기반으로 상승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1분기까지는 현대차그룹의 특별 주주환원, 3월 말 배당, 내년 상반기 자기주식 매입 등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 KB운용, ‘머니마켓액티브펀드’ 순자산 1兆

초단기채 펀드 중 순자산 규모 1위

KB자산운용은 KB 머니마켓액티브펀드가 순자산 1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초단기채 펀드 중 순자산 규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KB 머니마켓액티브펀드’는 약 3개월 이내의 고금리 우량채권에 주로 투자한다. 대표적인 단기 투자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대비 편입자산의 규

제가 적어 적극적인 자산 편입이 가능하다. 단기채권 및 기업어음(CP)에 60% 이상, 유동성 자산 등에 40% 이하로 투자하며, 환매수수료가 없어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통상 국내 단기채권형 펀드는 환매까지 3영업일이 소요되는데 ‘KB 머니마켓액티브펀드’는 하루 빠른 2일 만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높다. 또한 MMF에 준하는 듀레이션을 통해 단기채권 펀드 대비 금리 변동성이 낮다.

KB자산운용은 지난해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초단기채 상품을 이례적으로 동시에 선보였다. 최근 몇 년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테마형 상품들이 대부분 ETF 중심이었던 것과 차별화된다. ‘RISE 머니마켓액티브 ETF’ 또한, 최근 순자산 2조원을 돌파하면서 ‘KB 머니마켓 시리즈’의 전체 순자산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섰다.

/신하은 기자



2024년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시상식  
일시 | 2024년 11월 25일(월) 14:00  
장소 | 한국거래소 Market Square 1F  
한국거래소는 올해 환위험관리 최우수기업으로 티엠씨를, 우수기업으로 영풍전자와 티모션코리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서울 사옥에서 ‘2024년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시상식’과 ‘환위험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환위험관리 최우수기업에는 티엠씨가, 우수기업으로는 영풍전자와 티모션코리아가 수상했다. /한국거래소

## 미래에셋증권, 中企 근로자 노후준비 돕는다

‘제1회 푸른씨앗 파트너스 데이’

미래에셋증권이 ‘제1회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푸른씨앗 전담 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위탁운용사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금수익률 증대 및 제도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푸른씨앗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운영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이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재정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수수료 면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푸른씨앗 전담 운용기관으로 제도 시행



한수일 NH-Amundi자산운용 채권운용 부문장(왼쪽)과 구종회 미래에셋증권 법안솔루션 부문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후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수익률 13.29%(세전), 지난해 6.97%(연, 세전)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지난달 말 기준, 푸른씨앗 적립금 규모는 7433억원이며, 가입사업장수와 근로자수는 각각 2만803개소, 9만5970명에 이르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수수익률이 입소문을 타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승선 미래에셋증권 OCIO(외부위탁운용관리)솔루션본부 본부장은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